

경기 솔솔~ 독서바람

포스트코로나! 독서는 가장 오래된 미래

현장에서 소리 없이 독서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실천가들의 이야기를 담아 현장이 현장을 위한 자발적인
독서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크고 작은 바람이 모여
독서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과정적 독서성장을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며 이러한 이야기가 바람타고 멀리멀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정책과 -



※ 책 읽는 학교문화

- 인문학적 감수성과 자기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배곧 詩숲 · 책숲 프로젝트 02
- 삶과 삶을 연결하는 온 · 오프라인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아이(I)-컨택트 독서프로그램 04

자료 송부 및 문의

☎ 031-820-0728

✉ hjzzang222@korea.kr

※ 교육과정 연계 독서기반 통합 · 융합 프로젝트

- 時時(시시)때때 책 친구와 함께 놀며 배우며 08
- 블랜디드 러닝을 통한 삶으로 확장된 독서교육 11
- 현실 속 나와 닮은 꿈 인물은 누구? 16

※ 독서(교육)역량

- '다다익선(多多益善) 도서관잔치'로 독서력, 문장력 쑥쑥!! 20

※ 특별기획 ▶ 미디어리터러시 편

- 언론에도 유명한 지킬이 있다! 24

일상에서 실행하고 계시는 사례를 기꺼이 공유해 주신 배곧고등학교, 곡수초등학교, 한백중학교, 자유초등학교, 송원초등학교, 비봉초등학교, 인덕원중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유 자료에 소개된 도서는 독서활동을 위한 예시 자료입니다. 선생님, 부모님, 학교(교사)마다 교육활동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지금 독서 모임은 온라인 모임을 해주시고 오프라인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책 읽는 학교문화

도서관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북미 학교도서관을 가다」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①



인문학적 감수성과 자기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배곧 詩숲 · 책숲 프로젝트



활동기획 의도

나를 돌아보고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감수성은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교실뿐만 아니라 교실 안팎을 넘나들면서 스스로 배움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학생들이 인지적 · 정서적 ·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과 평화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스스로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활동 내용

첫째, '詩' 달력과 함께하는 교실맞이, '주제가 있는 시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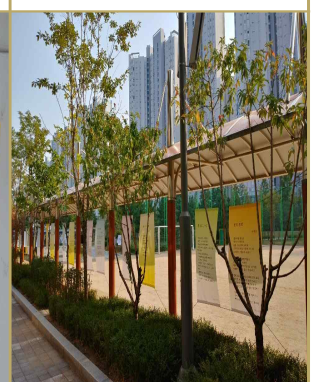
매월 첫째 날, <좋은 시 나눔반> 동아리에서 선별하고 제작한 詩달력 카드를 전 학급 전 학생에게 배부하여 담임선생님의 교실 맞이에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매월 시를 짚며 감수성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 1회 자연과 관련된 소재로 시화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시 40편 필사 노트 쓰기」, 「시화 엽서 만들기」, 「시가 있는 영화감상」, 「시가 꽃피는 나무 만들기」, 「시가 있는 그늘막 만들기」 등을 부대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詩달력과 함께하는 교실맞이



주제가 있는 시화전



둘째, 말의 품격을 품은 '스마일 우리말' '별밤 릴레이 시 낭독회'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3학년 국어 교과 시간에 **말의 품격**과 관련된 책을 읽고 모둠별 토론하는 「스마일 우리말」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과학의 밤'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연 관련 소재 시를 학생이 직접 선정 · 낭독하는 「**별밤 릴레이 시 낭독회**」를 통해 과학과 문학의 융합, 사물을 바라보는 차이와 다양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의 품격을 품은 스마일 우리말



별밤 릴레이 시 낭독회



셋째, 학교도서관 연계 '책숲 걷기', On-line 독서 배곧다움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적 독서 능력을 키워주고 책 읽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교도서관과 연계한 「책숲 걷기」 프로젝트 및 On-Line독서 배곧다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관심 분야 책 또는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읽고 인증샷을 올리는 「아무 책 챌린지」, 교과서 속 문학작품을 읽고 한 줄 서평을 올리는 「책 읽는 게 내 특기야」, 선생님이 추천하는 책을 학생에게 선물하는 「줄탁동시 책 보따리」를 창의주제 활동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진행했습니다.

책숲 걷기 프로젝트

독서량 (페이지)	거리 (km)	책 권수 (권) (책 1권을 300쪽으로 가정)	코스
300	3km	1	기본코스 완주
600	6km	2	
900	9km	3	
1200	12km	4	
1500	15km	5	
1800	18km	6	하프코스 완주
2100	21km	7	
2400	24km	8	
2700	27km	9	33코스 완주
3000	30km	10	
3300	33km	11	
3600	36km	12	풀코스 완주
3900	39km	13	
4200	42km	14	

On-line 독서 배곧다움

넷째, 이웃 초·중학교 연계 '시배달 왔어요', '책언니 책오빠'

이웃 배곧 초·중학교 국어 교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선생님들과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재구성하여 체험 중심의 독서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생 창작시, 추천 시를 엮서로 제작하여 이웃 초·중학교에 배달하고 함께 낭독하는 「시배달 왔어요!」 운영하였으며, 독서동아리 학생들이 이웃 초등학교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책 언니 책 오빠」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영상을 촬영하고 제공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유 메시지

배곧고등학교의 '배곧'은 '배우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더 특별한 행복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다운 길을 찾아가는 여행"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책 읽기와 책 즐기기의 다양한 경험의 제공을 통해 학생들은 인문학적 감수성과 자기표현 능력이 자라고, 궁극적으로 학생 스스로 배우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詩 읽기와 詩 즐기기가 단순히 학습 일부라는 생각 이전에, 학생들에게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키워주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험을 준다는 생각이 우선해야 합니다.

- 배우는 곳! 배곧고등학교 교육공동체가 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함께 합니다. -



책 읽는 학교문화 조성 ②

삶과 삶을 연결하는 온오프라인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아이(1)-컨택트 독서프로그램



이런 뜻을 담아서

전교생 54명의 소규모 초등학교이기에 학교 수업에 큰 영향을 끼쳤던 코로나 방역 기간 중에도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며 대출 및 온_오프라인 독서 활동을 활발하게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낙후된 지역이라 처음 만나는 학교도서관이 학생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하고 다양한 독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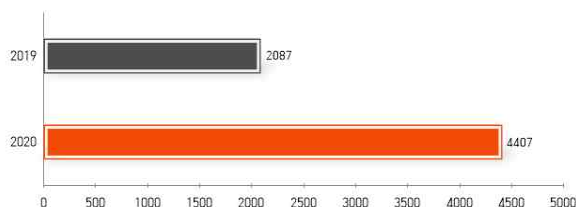
학교독서교육을 위해 하나가 되어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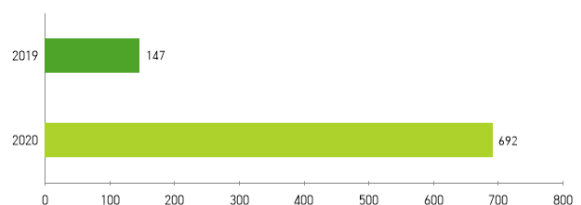
※ 교실 속 독서교육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지원

- ▶ 사이버도서관 e-book 독서활동
 - * 경기사이버도서관, DLS, 북드림 활용 전자책 (e-book) 독서활동 적극 홍보
- ▶ 학교도서관 활용 인식 제고
 - * 예약제 비대면 도서 대출 및 다양한 도서관활용 프로그램 운영
- ✿ 도서대출 211%, 이용자수 470% 증가(2020대비)

【연간 도서 대출: 작년 대비 211% 증가】



【월평균 이용자 수: 작년 대비 470% 증가】



활동 내용

※ 사서교사-담임교사 공동 연구 바탕, 교육과정연계 독서프로젝트

- ▶ ZOOM 활용 원격 독서수업(전학년)
- ▶ 발달단계에 맞는 그림책과 교육과정에 나오는 도서를 중심으로 독서교육 및 도서관 이용교육실시(1~2학년)
- ▶ '한학기한권읽기' 독서단원을 활용한 온책읽기 프로젝트 운영(3~6학년)
- ❁ 학급별 주1회, 국어교과 재구성, 사서교사 중심

【독서교육 수업 장면 (교실)】



【1학년 독서교육 활동 결과】



【온책읽기 프로젝트 활동결과물】



활동 내용

※ 학교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진로교육 연계 독서인문프로그램 '직업으로서의 작가 3인3색'
 - * 작가의 삶과 창작의 세계 질의응답
 - *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글쓰기 밖으로 확장되는 작가의 삶을 아이들의 삶과 연결
- ▶ 학교독서페스티벌 '친구야 같이 읽자'
 - * 학생의 삶과 맞닿아 있는 도서를 바탕으로 한 독후활동
 - * 도서나눔 베품시장 등

활동 내용

※ 아이들이 커가는 마을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마을도서관' 서비스 제공

- ▶ 마을 유일의 도서관으로서 마을의 지식정보 중신센터 지향
 - * 마을 대상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마을 독서생태계구축
- ▶ 책의 향기가 스미는 마을 정담터
 - * 방과후 스스로 과제 해결하는 장소
 - 마을주민에게는 사색과 정담을 나누는 장소를 지향하는 개방적 도서관

2021년에는 이렇게

- ▶ 학년별 공동연구를 통해 재구성한 독서교육 프로젝트를 다른 학교도서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 ▶ 학교도서관이 종합교육공간으로서의 지역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층 중앙현관에 분관(북카페)를 마련하였습니다!
 - * 도서관의 협소한 공간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고 쉽게 독서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 *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1층 북카페 공간에 정기간행물, 신간자료, 학습용보드게임을 비치할 예정입니다.



공유 메세지

학생들의 한마디 모음

"다른 곳들은 문을 닫아 이용하기 힘든데 학교도서관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 좋아요"

"학교 행사를 통해 작가님을 처음 만나보았어요."

"저는 책을 싫어했는데 한 작가님의 책들을 읽고 편지도 읽고 작가님을 만났을 때 궁금한 것을 물어보다 보니 책이 좋아졌어요."

"책 찾는 것을 몰라서 도서관에 오면 당황했는데 이제 책을 잘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도서관에 와서 독서수업하는 요일이 기다려져요."

"오늘 읽은 책도 역시 재미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책 읽어주실거죠?"

- 곡수초등학교는 도서관을 향한 아이들의 즐거운 아우성을 사랑하며
그 아우성과 어우러져 교육공동체가 함께 독서교육을 실천합니다! -





교육과정 연계 독서기반 프로젝트

좋은 책은 읽는 사람을 자신만의 세계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쓴 사람과 공감대를 갖게 하고 어떤 깨달음을 통해 열린 눈으로 주위 세계를 보게 만든다.

「그림책에서 이야기책까지」

- 와키 아키코 -





교육과정 연계 독서기반 통합 융합 프로젝트 ①

時時(시시)때때

책 친구와 함께 놀며 배우며

활동기획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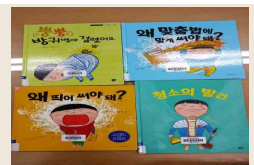
초등 2학년 학생들은 학습적인 성장 단계에서 **한글을 해득한 후 문해력**을 키우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효과가 큰 시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읽는다는 것은 생각을 키우고, 글로서 자기 표현하는 바탕이 되므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또 자료로서 **책을 활용하는 활동을 프로젝트로 꾸준히 적용**하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영상을 통해 접하는 것과는 또 다른 재미가 책 읽기에 숨어있음을 경험하게 해주고자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활동내용



작가집중탐구와 만남 프로젝트

과목	단원명	차시	활동내용
국어	2-2-2 인상깊었던 일을 써요	1~4 /10 (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뽕뽕 방귀병에 걸렸어요」, 「청소의 발견」을 읽고 인상 깊었던 일 찾기 - 글을 쓸 때 글감을 고르는 방법으로 인상깊었던 일을 선택하는 전략 이해하기 - 흥내내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해보기
겨울	2-2-1 두근두근 세계 여행	38~40 /40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름」 책 읽고 문화적 다름에 대한 이해력 높이기 - '다른 나라'를 학습하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실천력을 키우고자 함 ① 온책읽기로 내용 파악 후 책 골든벨퀴즈대회 ② 책에서 인상 깊은 내용과 비슷한 문화 소개하는 'OO문화 소개 카드 쓰기' 및 내용 나누기 ③ 박규빈 작가에게 '작가님!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세요!', 궁금한 내용 질문지 만들기 ④ 작가와의 만남 수업 진행과 책을 만드는 과정 이해하기
국어	2-2-6 자세하게 소개해요	7~10 /40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띄어 써야 돼?」, 「왜 맞춤법에 맞게 써야 돼?」 읽고 글자와 다르게 소리나는 낱말 이해하기 - 한글 익히기가 완성되어야 하는 2학년 학생들에게 맞춤법에 대한 재미있는 접근으로 한글기본기 다지기 ○ 책 속 인물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글쓰기 활동 - 자신이 흥미있게 읽은 책의 주인공을 소개하는 글쓰기 작품 전시





교육과정 구석구석 책과 연결지어 책 친화력 높이기

과목	단원명	차시	활동내용
겨울	2-2-1 두근두근 세계여행	1~10 /40 (10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에서 빌려온 역지사지 세계문화 시리즈 활용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유럽의 대륙별 대표적인 나라들을 소개하는 책 50권을 대여하여 활용 교실에 40차시 단원 진행동안 전시, 시시때때로 읽도록 환경조성 자신이 읽은 책 속의 나라를 선택하여 소개하는 보고서 쓰기 다른 나라의 국기, 음식, 전통, 옷, 인사말 등에 대한 골든벨 퀴즈 대회로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도 높이고 관심을 높이며 지구촌 시대의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지원
국어	2-2-4 인물의 마음 집착하기	1~10 /10 (10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홉살 마음사전」 책 읽고 마음 표현의 다양한 어휘 이해하고 생활 속 감정 표현에 활용하기 매주 월요일 클래스팅 플랫폼의 원격수업과 등교 후에는 아침시간을 활용하여 「아홉살 마음사전」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낱말을 교사와 함께 읽고 자신의 마음이 비슷한 상태인 친구 답글 달기와 자기 마음 말하기 활동 실시 등교 후 교실에 들어서면 내 마음 날씨 게시판에 자기 마음 붙이기 우리반의 아홉 살 마음 사전 약속 정하기 우리가 만드는 우리반의 아홉 살 마음 사전 완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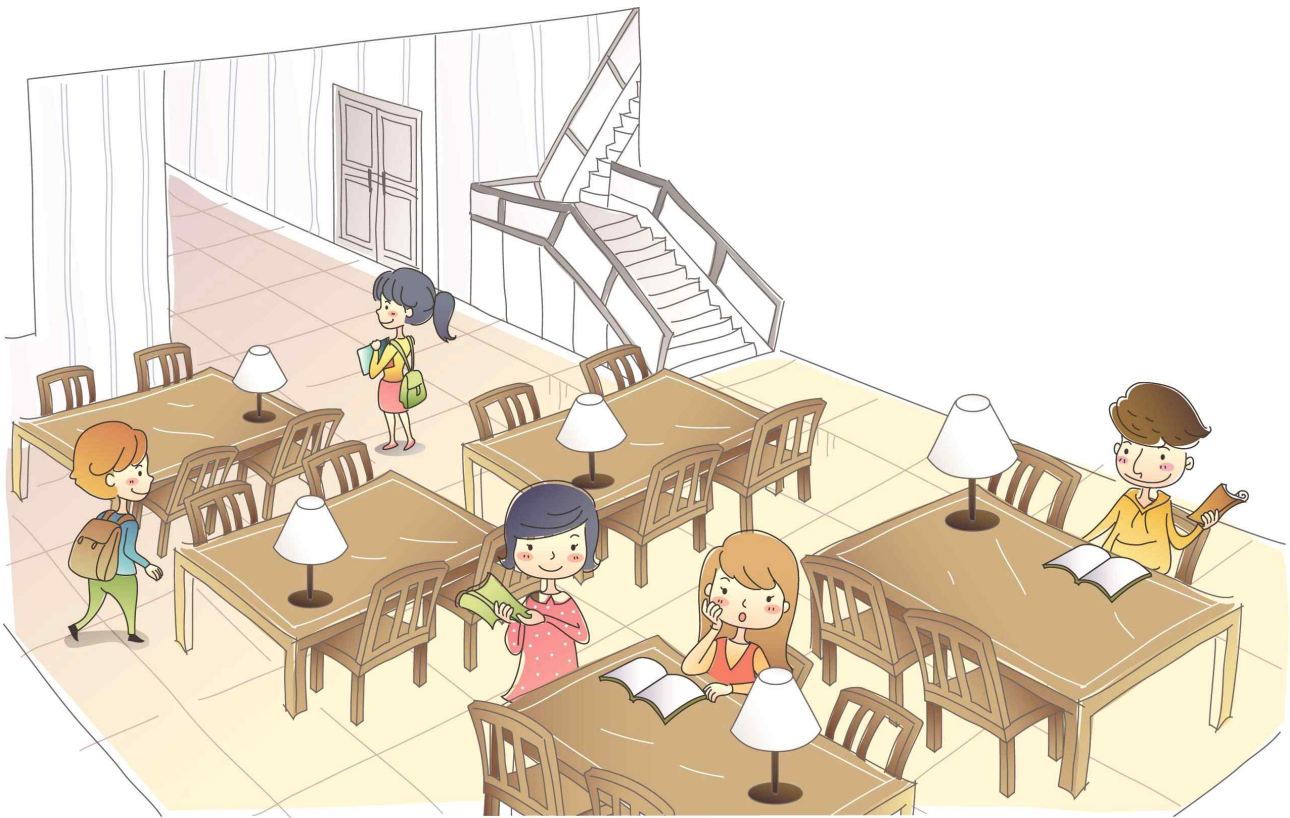
구석구석 시시때때로 책친구와 놀이로 배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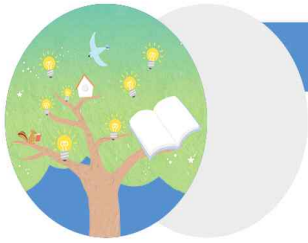
과목	단원명	차시	활동내용
창체 자율	책놀이	1~16 /16 (16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읽은 책 띠지 만들기(4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수업기간동안 도서관 책 꾸러미 배달을 활용하여 책읽기를 하고 자신이 읽은 책의 책띠지 만들기과 클래스팅 답글 달기 활용 내가 읽은 책 그림퍼즐 만들기(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읽은 책의 내용이나 인물을 소개, 책표지를 소개하는 그림퍼즐 만들어 클래스팅 답글 달기 활동 2차시 실시 「나는 괴물이다」 책 읽고 종이봉투에 창의적인 나의 괴물 표현해보기(2차시)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책」 창의 표현 활동(6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머리가 좋아지는 그림책의 앞부분 그림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뒷부분 상상하여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기 파주 독서마라톤 참여 가정연계 활동(수업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이 읽은 책의 흔적이야기 만들기로 파주 독서마라톤을 신청하여 꾸준히 독후활동을 가정과 연계

교육과정에 참고자료로 사용된 책 목록을 분석하여 **함께 읽기**나 **온책읽기**로 한후 활동을 하면 학생들의 흥미가 더 높았습니다. 성취기준을 분석하여 연계할 교과를 찾고 교과나 창체 시수를 확보하여 활동을 하고 발표와 전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생각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도서를 다량대출하여 프로젝트 활동 기간에 수시로 읽고 정보를 찾아서 활용해보는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도에 적합한 책을 활용하는 안목을 키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은 단순한 책읽기 활동을 권장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과 더 가깝게 느껴지므로 학생들이 집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독서로 꿈꾸는 자유초등학교 교사 전업숙 -





교육과정 연계 독서기반 통합·융합 프로젝트 ②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삶'으로 확장된 독서교육



활동기획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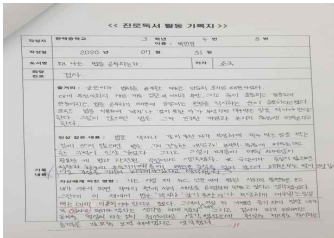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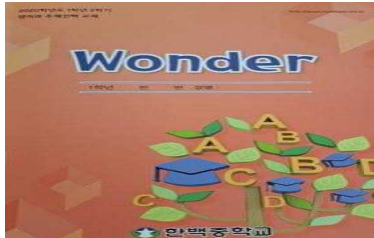
코로나19로 교육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의 학사일정은 계속해서 바뀌었고,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등 학습의 주체인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도 또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인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교육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도서관도 휴관에 들어가라는 공문이 교육청에서 내려와 학교도서관의 문도 굳게 닫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독서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온·오프라인 기반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활동내용



한백중 독서교육 I

한학기 한권 읽기 지원사업연계	창체동아리 및 자율동아리 연계 독서수업	중학교 1학년 영어과 주제선택 프로그램(원더)와국어(아름다운 아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교육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연계 독서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강사 및 도서를 지원 받음 □ 4차시 '시 표현하기' 수업 실시 (강사님의 원격수업으로 진행) □ 나태주 작가와의 만남 실시 (학생 및 교사 50명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체동아리 운영 1학년: 동화보기반, 2학년: 시 표현하기반, 독서토론반 3학년: 미디어리터러시를 통한 진로독서반 □ 자율동아리 '다독다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아이의 원작인 'Wonder(원더)' 원서를 읽고 챗터별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실시, 국어시간 '아름다움 아이' 독서 후 독후활동 실시, 미술시간 주인공 캐릭터 그리기 활동 실시 예) 영어 11~12차시 The Bleeding Scream 상처받은 Auggie 에게 위로의 편지 쓰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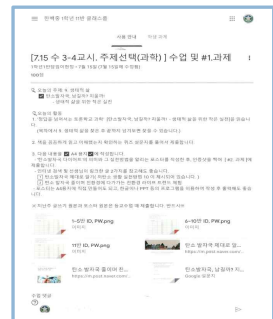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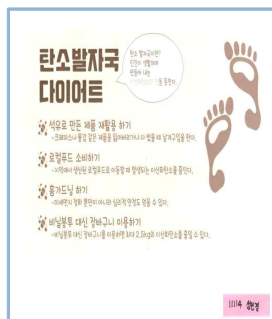
한백중의 독서교육 II

e-book 활용 교과융합독서교육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도서관 도서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 e-book 「정답을 넘어서는 토론학교 과학」을 구입하여 과학과 국어교과에서 교과융합독서교육을 실시함.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수업 전, 중, 후 독서활동 및 독서학습 과제 및 평가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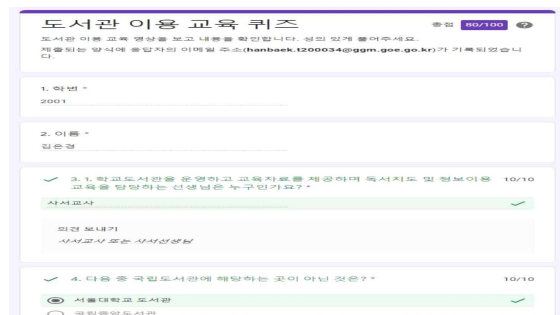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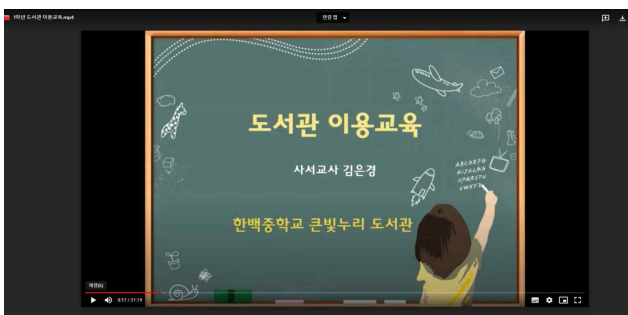
활용교과	단원	수업내용	원격수업도구
과학	6단원 유전자조작식품	GMO완전표시제 관련 리플렛 및 포스터 만들기	구글 클래스룸
	9단원 생태적 삶	탄소발자국 다이어트의 의미와 실천방법을 알리는 포스터 만들기	
국어	3단원 강살리기	구글 문서로 주장하는 글쓰기 '강 살리기'의 내용을 토대로 상반된 주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 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한편의 완결된 논설문으로 완성하기	



학교도서관 협력수업

□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과 국어의 마음이의 독서일기 중 마음이가 도서관에 간 장면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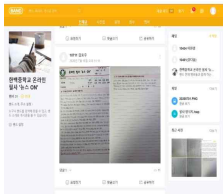

□ 구글 클래스룸에 온라인 도서관 이용 교육 영상 탑재를 통해 교육 실시





온·오프라인 연계 학교독서인문교육

□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활동 사진
<p>✿ 세계 책의 날 행사</p>	<p>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학교알리미인 e-알리미를 활용하여 책의 날 삼행시 짓기, 독서표어 만들기, 아무책 독서 챌린지를 실시함. 우수작은 도서관 게시판에 전시하고 참여학생에게 상품을 증정함(총 150명 참여).</p>	
<p>✿ 뉴스 ON (온라인 필사)</p>	<p>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빅카인즈의 신문 칼럼을 필사하여 온라인 밴드에 인증하도록 함. 총 4회 운영. 칼럼을 필사한 후 학생들이 쓴 나의 생각(5줄)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함(총 30명 참여).</p>	
<p>✿ 하루 15분, 한백북 클럽</p>	<p>하루에 15분 독서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에서 증명하는 도서를 읽고 북 캘린더에 따라 미션을 인증함. 읽은 책 페이지와 함께 매일의 미션이 실시됨. 구글클래스룸과 오픈채팅방으로 행사 운영(총 40명 참여)</p>	





온_오프라인 연계 학교독서인문교육

□ 오프라인 독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활동 사진
<p>✿ 1만 페이지 읽기 인증제 실시 (2020.3.~현재)</p>	책 읽는 학교 조성을 위한 한백중의 특색 프로그램, 독서수첩을 활용한 1만페이지 독서 실천(교육공동체 함께 참여)	
<p>✿ 독서프레젠테이션 대회(2020.8.7.)</p>	읽게 된 계기, 책의 내용, 책에 대한 평가, 책에서 받은 영향과 의미로 PPT를 만들어 3분 이내로 발표 (총 48명 참여)	
<p>✿ 독서골든벨 대회 (2020.9.25.)</p>	코로나 상황으로 1차 지필고사 형태로 예선을 치른 후 원점수 70점 이상의 학생들과 본선을 진행함(총 82명 참여) 지정도서 : 옷장에서 나온 인문학(이민정), 오빠를 위한 최소한의 맞춤법(이주윤)	
<p>✿ 반딧불이 독서캠프 (2020.11.6.)</p>	책 읽는 학교 조성을 위한 특색 프로그램으로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함께하는 독서체험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짐. 작가와의 만남(김혜정작가), 비경쟁독서토론(기억전달자), 독서와 미술과의 융합활동(아코디언북 만들기)을 진행함. (총 50명 참여) 비경쟁독서토론은 사전 독서 후 개별 피드백을 통해 교사가 내용 체크 후 실제 독서캠프일에 비경쟁 독서토론을 실시함(총 50명 참여) 패들렛 및 구글클래스룸 병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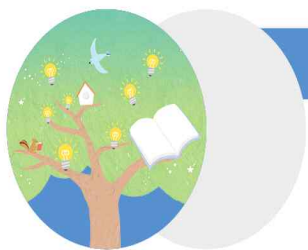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콩나물이 부쩍 자라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게도 지속적이고 연속성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주면 어느새 학생들의 내면은 견고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 아이들이 자칫 독서에서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를 역으로 이용하여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기간에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지속적인 독서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 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독서와의 만남을 시도**하다면 **아이들의 삶으로 확장된 독서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 책과 아이들, 그리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한백중학교 사서교사 김은경 -





현실 속 나와 닮은 꿀 인물은 누구?



활동기획 의도

온라인 비대면시대를 맞이하여 폐가제로 인한 시점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책 읽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연구부장님의 조언으로 교과서 인물은 어떨까에 대한 힌트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책장 한 귀퉁이 어김없이 꽃혀있는 교과서 관련 위인이나 인물을 읽게 해주려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권 정도의 위인이나 인물을 가정의 책장에서 의미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MBTI 성격유형 검사와 다중지능과 연결시켜 나와 연결고리를 찾아서 해당하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가정에서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실시하여 보았습니다.



활동내용

1~2학년

가로세로 인물 추적

♣ **교과서 인물을 십자카드 형식**으로 인물의 업적을 힌트로 인물을 선택하여 책을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십자는 현대 인물로 학생 스스로가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인물의 업적이나 인물하면 떠오르는 문장을 16자칸 게임으로 진행했습니다.

(링크주소) <https://forms.gle/Ta47x1b8xECuv31h9>

활동 내용은 온라인 **비대면활동으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학년군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느라 난위도에 대한 조절이 있어야 했고, 많은 학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의 홍보와 문자 메시지로 학부모님께 링크 주소를 연결하였습니다.

3~4학년

몰라봐서 미안하다
나의 특별한 재능

♣ **다재다능한 다중지능**을 강조하는 현실에 맞게 나의 다중지능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 나와 비슷한 재능을 가진 현실적인 인물이나 위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연결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링크주소) (<https://forms.gle/CXPYbbFx8Dz7XP996>)

5~6학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 **고학년은 MBTI의 성격유형검사**를 통해서 나와 닮은 유형을 탐구해보고 진로에 맞는 인물인지 진로 탐구 과정과도 연결되는 활동입니다.
책은 현실과 소통해야 합니다.
간접 경험이기도 하지만 현실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합니다.

(링크주소) (<https://forms.gle/13a1JvMdebgA3kkk7>)

송원초 도서관 인물읽기 이벤트

EVENT!

코로나19 시기에도 다양한 환경에서 독서의 기회를 마련하세요!

- * 1-2학년: 가로 세로 인물 추적!
(선물증정: 네임택+별사탕)
- * 3-4학년: 몰라봐서 미안하다 나의 특별한 재능~
(사프 +별사탕)
- * 5-6학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투명포토카드+별사탕)

* 기간: 6/29(월) - 7/5(일)
* 방법: 링크된 주소로 따라가서 책을 읽고 모든 미션을 수행하면 완성~
* 주최: 송원초등학교 도서관

이벤트 홍보지



<1,2학년 도서관 이벤트: 가로 세로 인물추적!> 나의 책장 속 과거 인물에 대한 관심은 나와 맞는 직업과 만나다~

* 단 책장안에 아래 인물들과 관련이 있는 책이 없으면 부모님과 함께 인터넷으로 조사해보세요~

* 필수항목

나는 몇 학년 몇 반 일까요? *

내 답변

나의 이름은? *

내 답변

가로세로 인물추적(1~2학년)



<3,4학년 도서관 이벤트: 몰라봐서 미안하다~나의 특별한 재능> 다재다능한 인물들은 나와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나와 연 결고리 찾아서 인물 관련 책 읽어보고 생각 적어보기~

* 필수항목

나는 몇 학년 몇 반 일까요? *

내 답변

나의 이름은? *

내 답변

몰라봐서 미안하다(3~4학년)



<5,6학년 도서관 이벤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성격 유형을 분석해서 나와 닮은꼴 인 물을 찾아서 책을 읽어보거나 관련 직업 인 물을 찾아서 알아보고 나의 생각 적어보기 ~

* 필수항목

이메일 주소 *

이메일 주소

[참여방법] 1. 링크 주소에 들어가서 성격유형을 검사한다 2. 나와 닮은꼴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살펴본다 3. 책 한 권을 선택하여 읽어본다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해 본다 4. 나와 닮은 점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을 정리해본다 그리고 직업적인 꿈을 이루 기 위한 노력 적어보기 * 관련직업 인물이 없으면 자유롭게 본인의 꿈 포털을 적어보 세요~

링크주소: <https://www.16-personalities.com/ko>

네가 왜 거기서 나와(5~6학년)

공유 메세지

구글 설문지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3~5월부터 진행한 학교 신청도서도 설문지로 진행했고 5월 가족의 달의 이벤트를 진행한터라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학년군에 따른 접근점이 달라야 하고, 각 학년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기획 구성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가정에서의 학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학 부모님의 호응도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5~6학년 성격유형검사가 대부분 외국 인물들이라서 굉장히 자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 다함께 공동작업을 하신다면 인물에 대한 정보가 훨씬 풍부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인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 인물을 연결하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격유형검사가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인 인물 연결은 한마디로 인물이 내 안에 온 것 같은 동질감을 심어주기에 좋은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물을 읽는 독서를 통해 자신의 **독서 방향을 디자인**해보세요~

자신의 미래를 인물을 통해 이미지화하는 것은 독서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니까 말이죠!

- 책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송원초 강윤아 선생님 -



독서[교육]역량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우리는 매일 매일 한 페이지씩
인생의 책을 써 나간다.

- 메테르링크 「파랑새」작가 -



독서[교육]역량 ①

다다익선(多多益善) 학교도서관 잔치로 독서력과 문장력 쑥쑥!

활동 기획 의도

코로나19로 독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한 독서 공백을 해소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학교의 지역 특성상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많아 독서력이 현저히 낮아 지속가능한 독서프로그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서력도 향상시키고 자연스럽게 글쓰기 훈련도 될 수 있도록 '다다익선(多多益善) 학교도서관 잔치'라는 행사를 기획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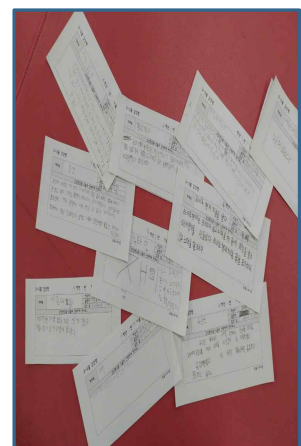
1 신착 도서 전시

프로그램 홍보를 위하여
도서관 앞
복도에 게시하여
대출 독려



2 활동지 제작

- 4개의 활동지 제작
- 3~5줄 감상평쓰기
 - 책 표지 그리기
 - 독후감 쓰기
 - 3단 논법 짧은 글짓기



다다익선(多多益善) 행사 운영 Tip

- * 자유롭게 활동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 독후감상문은 책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꼭 파악해야 하는 부분을 담는다.
- * 독후활동별 포인트를 부여하여 포인트가 쌓이면 연말에 선물로 교환한다.
- * 활동지 응모함을 도서관에 비치한다.
- * 대출할 때 간단한 활동지를 같이 배부하여 동기를 부여한다.
- * 도서관 출입 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
(손 소독, 마스크, 사회적 거리 유지, 수시 소독 및 환기)
- * 담임의 협조를 구해 학급 전체 참여 또는 개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학급 안내문 및 활동지 양식을 메신저로 송부하여 수업 연계 유도)

공유 메세지

- *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을 만나 모든 활동이 위축되었지만, 그 틈새를 찾아 독서 활동으로 연계하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지적 자극이 적은 학생들에게 독서력을 향상시키고 반복 참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본적인 글쓰기 훈련이 됩니다.
- * 모든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 라는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비봉초등학교 독서교육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 독서로 아이들의 삶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비봉초 오송희 선생님-





특별기획

본 자료는

<(가제) 생각을 키우는 뉴스 리터러시>

강정훈 선생님의 저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언론에도 유명한 지킬이 있다!



인덕원중학교 교사 강 정 훈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886년에 쓴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의 이중 인격을 다룬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후에 영화와 뮤지컬로 만들어져 엄청난 인기를 거두었죠. 소설 속에서 주인공인 지킬 박사는 약물을 통해서 자신의 선과 악을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선한 신사 '지킬'로 살고, 밤에는 악한 '하이드'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지킬은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약물을 계속 주입합니다. 그래서 지킬의 모습은 점점 줄어들고 하이드로 변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선한 지킬의 모습에서 악한 하이드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폴리처상을 아시나요?

갑자기 지킬 박사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언론의 역사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 폴리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폴리처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폴리처상 때문일 것입니다.

폴리처상은 미국의 모든 언론인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매우 권위 있는 상입니다. 미국 사람 또는 미국 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한계가 있지만, 언론의 노벨상과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폴리처상이 바로 폴리처의 유산으로 191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폴리처상 중에서 사진 분야는 전 세계를 돌며 전시회를 열 정도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 2020년에 전시회가 있었는데 매우 성황이었죠. 폴리처상은 언론인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상입니다. 그래서 폴리처란 인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죠. 그런데 폴리처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엘로저널리즘'을 만든 사람이 바로 폴리처였습니다.

옐로저널리즘! 왠지 시선이 가네!

옐로저널리즘은 우리나라에서 '황색저널리즘'이라고도 합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쓰인 저속하고 자극적이며 선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말합니다. 풀리처의 '뉴욕월드'는 허스트의 '모닝저널'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풀리처는 허스트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신문 속에 만화와 사진, 그리고 스포츠 기사를 많이 넣었습니다. 더불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하였죠. 이때 인기를 얻었던 선정적인 만화 중에 '호건 앨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노란 옷을 입은 '옐로 키드'였죠. 이 만화가 계기가 되어 그 이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를 옐로저널리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뉴스에서도 이런 옐로저널리즘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로 뉴스를 보는 요즘엔 제목을 자극적으로 다는 사례가 많아졌죠. 사람들은 뉴스의 제목을 보고 그 뉴스 내용을 클릭할 것인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호기심을 갖게 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제목을 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의 짧은 의상을 이야기하며 "하의 실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마치 안 입은 것을 연상시킵니다.

또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사건을 한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어서 제목을 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라고 하더라'처럼 보도합니다. 사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기자는 사실을 확인해보고,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보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도 기자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이 외에도 뉴스가 살인사건이나 자살, 폭력, 강간 등 매우 자극적인 사건이 소재로 등장하는 것도 옐로저널리즘의 한 예입니다.

옐로저널리즘이 일으킨 전쟁

옐로저널리즘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뉴스 클릭해서 보고 나면 끝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스트와 풀리처의 옐로저널리즘 대결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바로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으니까요. 1898년 스페인의 식민지인 쿠바에서 미국의 메인호가 폭발되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스페인은 폭발 원인을 찾기 위해 국제 재판에 회부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허스트의 뉴욕저널은 사건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스페인이 메인호를 폭발시킨 것처럼 보도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스페인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보도는 결국 미국 국민의 가슴에 스페인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었고, 이로 인해 1898년 4월 20일 전쟁이 선포되고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옐로저널리즘이 주는 부정적인 면은 바로 사실을 왜곡시키는데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된 원인과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자극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위에서 뉴욕저널의 경우 스페인이 메인호를 공격했다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이 침공하여 메인호를 폭발시킨 것처럼 보도하였죠.

둘째로 옐로저널리즘은 사실의 본질을 감춥니다. 예를 들어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살인이 일어난 원인보다는 살인 결과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일부 신문은 살인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뉴스도 있죠. 결국 원인 분석이나 예방 방법 등은 묻히게 됩니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폭력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안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싸움에 대한 비난 뉴스만 보게 됩니다. 이 결과 국민은 법안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죠.

셋째, 사람들의 감각을 점점 무감각해지게 만듭니다. 옐로저널리즘은 자극적인 단어 사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면 점점 무감각해지거나 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넷째, 자극적인 보도는 보는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여 그 화살이 특정인을 향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뉴스의 경우 댓글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자극적 기사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댓글을 과격하게 달아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었죠.

옐로저널리즘에 대처하는 자세

언론사의 옐로저널리즘을 대처하는 자세는 앞장에서 다루었던 경마저널리즘과 같습니다. 언론사의 책임으로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사에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반응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옐로저널리즘의 생산자는 언론사이지만 소비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를 보지 않으면 언론사도 이런 뉴스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옐로저널리즘을 대처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가 그런 뉴스를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클릭하지 않거나, 무심코 본 뉴스가 사건의 본질을 다루지 않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비판적인 댓글을 올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좋은 기사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기자에게 좋은 기사 고맙다는 메일이나 긍정적인 댓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기자들에게 더 좋은 기사를 쓰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뉴스를 단순하게 소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자가 되는 것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나가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사를 보고 긍정의 피드백을 주는 것!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가 보는 언론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넓히는 질문

1. 신문 뉴스와 영상 뉴스에서 각각 옐로우 저널리즘의 예를 들어 보고, 이 뉴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말해보시오.

2. 유튜브 등 영상 뉴스에서는 영상 자체나 헤드라인 등에서 선정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제목을 넣어서 독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시오.
